

1H26 글로벌 기업 주가: 미국 상승, 중국 약세



QR코드로 간편하게

상상인증권
더 많은 리포트 찾아보기

주간 정유/화학 뉴스

- 1) 카타르의 LNG 수출능력, 한 달내 50%, 두 달내 80% 회복 예상 (2026.06.16/한국경제)
- 2) IEA,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유지될 경우, 내년 원유 공급 과잉 나타날 것으로 전망 (2026.06.17/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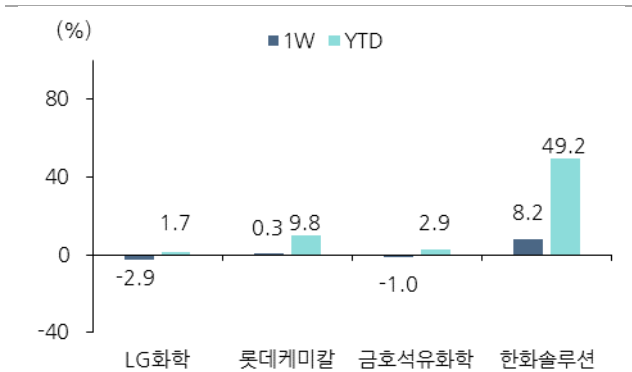
주간 신재생 뉴스

- 1) CATL, 전고체 배터리의 상업적 양산은 2030년 이전에 불가능하다고 언급. 국내 배터리 업체는 상용화 속도전 압박 받고 차세대 기술 키우기 돌입 (2026.06.18/뉴데일리경제)
- 2) 차세대 전기차 모델 프로젝트의 배터리 공급사 입찰 시작 (2026.06.18/디지털데일리)
- 3) 중국 주요 태양광 기업, 올해 1분기 수천억원 규모의 적자 기록 (2026.06.16/헤럴드경제)

[상상인 입장에서 보는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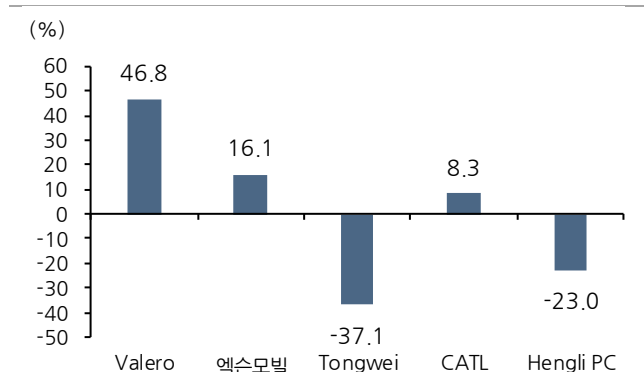
2026년 상반기 주가 수익률을 살펴본 결과 미국 정유/화학 기업은 대부분 상승하였으나, 중국 기업의 주가는 약세를 기록함. 연초 이후 미국의 독립 정유사 주가는 각각 Valero Energy +46.7%, Marathon Petroleum +50.7% 시현. ExxonMobil과 화학기업 Westlake Chemical 또한 +16.1%, +9.8% 상승하면서 미국의 정유/화학 기업 주가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임. 반면 중국 태양광 기업 Tongwei와 Longi는 -37.1%, -29.7% 하락하였고, 화학기업 Hengli PC와 Wanhua Chemical 또한 -23.0%, -8.4% 약세 시현. **중국 기업들의 주가 부진은 화학/태양광/이차전지 기업들의 구조적인 공급과잉과 구조조정 우려감이 주가에 선반영된것으로 판단됨**

그림 1. 국내 화학/태양광 기업 주간/연초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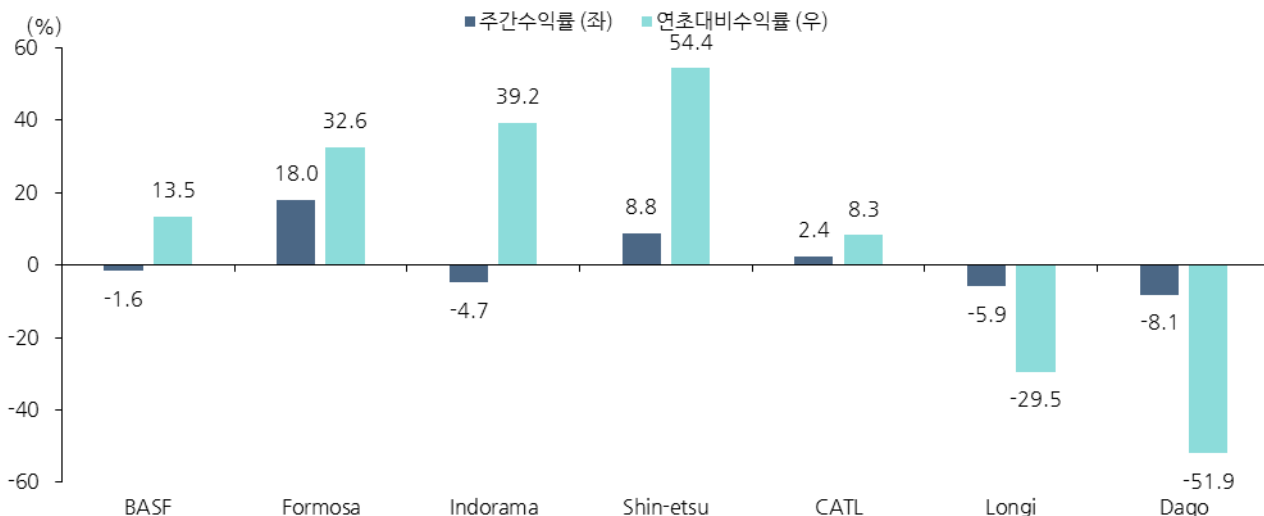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그림 2. 글로벌 정유/화학/태양광/이차전지 주가 수익률 (2026YTD)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그림 3. 해외 화학/태양광 기업 주간/연간 수익률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주식: 해외 종목은 전일 증가 기준 수익률 산출

표 1. 국내 및 글로벌 화학기업 주가 추이

| * 국내기업 | Currency | 주가 6월 19일 | 상승률 (%) | | | | | | P/E (X) | | P/B (X) | | EV/EBITDA (X) | |
|--------------------|----------|--------------|---------|-------|-------|-------|-------|-------|---------|------|---------|-----|---------------|------|
| | | | 1W | 1M | 3M | 6M | 1Y | YTD | 26E | 27E | 26E | 27E | 26E | 27E |
| LG화학 | KRW | 338,000 | -2.9 | -2.7 | 11.4 | -0.1 | 64.1 | 1.7 | 147.8 | 13.5 | 0.8 | 0.7 | 8.3 | 6.1 |
| 롯데케미칼 | KRW | 76,700 | 0.3 | -6.5 | -6.4 | 8.4 | 24.6 | 9.8 | N/A | N/A | 0.3 | 0.3 | 12.4 | 11.0 |
| 금호석유화학 | KRW | 125,000 | -1.0 | -9.1 | -5.0 | 0.0 | 11.4 | 2.9 | 8.5 | 7.3 | 0.5 | 0.5 | 4.6 | 4.1 |
| 한화솔루션 | KRW | 38,050 | 8.2 | -0.9 | -18.4 | 48.9 | 25.4 | 49.2 | 19.6 | 10.3 | 0.7 | 0.7 | 13.8 | 10.5 |
| OCI홀딩스 | KRW | 256,500 | -16.0 | -11.2 | 28.2 | 123.8 | 257.5 | 120.7 | 22.6 | 16.3 | 1.2 | 1.1 | 10.0 | 8.0 |
| SKC | KRW | 119,600 | -15.3 | -4.1 | 27.0 | 19.3 | 13.2 | 19.7 | N/A | N/A | 4.8 | 5.2 | 74.3 | 35.5 |
| HS호성첨단소재 | KRW | 188,000 | -5.3 | -13.4 | -13.4 | 1.5 | -2.2 | 3.9 | 15.0 | 8.8 | 0.9 | 0.8 | 8.1 | 7.1 |
| 코오롱인더 | KRW | 63,600 | -13.2 | -12.8 | -7.4 | 39.3 | 91.5 | 42.4 | 11.1 | 8.9 | 0.5 | 0.5 | 8.9 | 8.2 |
| * 해외기업 | | | | | | | | | | | | | | |
| BASF | EUR | 48.4 | -1.6 | -8.8 | 6.2 | 14.8 | 20.1 | 14.9 | 18.1 | 16.6 | 1.3 | 1.3 | 8.9 | 8.6 |
| Formosa Plastic | TWD | 51.7 | 18.0 | 12.6 | 9.3 | 30.4 | 47.5 | 32.6 | 131.9 | 30.3 | 1.0 | 1.0 | 35.8 | 23.0 |
| Indorama Ventures | THB | 22.1 | -4.7 | -8.0 | -3.8 | 47.4 | 15.3 | 39.2 | 20.0 | 14.9 | 1.0 | 1.0 | 8.2 | 7.8 |
| Shin-Etsu Chemical | JPY | 7,459.0 | 8.8 | 6.4 | 11.9 | 57.1 | 68.3 | 54.4 | 23.7 | 21.1 | 2.9 | 2.8 | 12.7 | 11.6 |
| CATL | CNY | 391.6 | 2.4 | -6.2 | -1.1 | 6.9 | 62.6 | 8.3 | 18.7 | 15.2 | 4.4 | 3.7 | 12.4 | 10.2 |
| Longi Green Energy | CNY | 12.8 | -5.9 | -15.2 | -30.7 | -27.5 | -12.0 | -29.5 | 987.7 | 29.1 | 1.8 | 1.7 | 15.3 | 9.0 |
| Daqo New Energy | USD | 14.2 | -8.1 | -18.7 | -36.0 | -56.1 | 0.3 | -51.9 | N/A | N/A | 0.2 | 0.2 | N/A | 3.3 |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주식: 해외 종목은 전일 증가 기준 수익률 산출

글로벌 정유/화학 뉴스

LNG 수출은 한 달 내 50%,
두 달 내 80% 회복 가능

"카타르, 2달 내 LNG 수출능력 대부분 회복 예상" [한국경제]

(2026.06.16) 카타르에너지는 구매자들에게 해협 통행이 정상화되면 한 달 내 생산능력의 약 50%, 두 달 내 약 80%까지 생산량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달. 특히 한 달 내 50% 수준의 생산 회복은 시장 예상보다 빠른 수준. 다만 전체 생산능력의 약 20%에 해당하는 생산 라인 두 곳은 지난 3월 이란 미사일 공격으로 손상돼 완전 복구까지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빠른 회복 위해 4월부터
장비테스트와 유지보수 진행

카타르는 전쟁 첫 주 이란의 공격 이후 세계 최대 LNG 생산 시설인 라스 라판 시설 가동을 중단. 라스 라판은 지난해 전 세계 LNG 공급량의 약 20%를 수출했던 핵심 시설로, 호르무즈 해협 사실상 봉쇄로 LNG 운송이 어려워지면서 3개월 이상 가동 중단 상태 지속. 카타르는 지난 4월부터 생산 재개에 대비해 장비 테스트와 유지보수를 진행해 왔으며, 발전소는 인근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동시에 필요 시 생산량 확대가 가능하도록 일부 생산 라인을 감축 운영 중

라스라판의 빠른 회복으로 LNG
수급 완화 기대

카타르의 LNG 수출 정상화는 글로벌 공급 부족 완화에 기여할 전망. 현재 유럽과 아시아 LNG 가격은 전쟁 이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카타르는 그동안 유조선 위치를 숨기는 방식으로 아시아 구매자들에게 제한적인 물량만 공급해 온 상황. 생산 및 수출이 정상화될 경우 글로벌 LNG 공급 여건 개선 기대

EA, 공급 정상화 이후 초과 공급
발생 가능성 제기

IEA "美이란 종전 합의 유지되면 내년엔 석유시장 공급 과잉" [뉴시스]

(2026.06.17) IEA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유지될 경우 중동 지역 원유 생산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되며 내년 글로벌 원유 시장에 공급 과잉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 올해 걸프 지역 유전들이 수개월간의 가동 중단 이후 생산을 재개하면서 공급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공급 정상화 이후에는 상당한 규모의 초과 공급 발생 가능성 제기. 또한 오만만에서 선박 간 환적이 증가하면서 6월 초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수송량도 증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 중동 지역 원유 수송량은 하루 960만 배럴 수준이었던 5월 저점 대비 약 1,200만 배럴까지 증가

올해 대비 내년엔
공급 일 800만 배럴 증가 전망
수요는 일 200만 배럴 증가 전망

IEA는 내년 글로벌 원유 생산량이 하루 1.1억 배럴에 이를 것으로 전망. 이는 올해 대비 하루 800만 배럴 증가한 수준으로, 세계 원유 수요 증가분인 하루 200만 배럴을 크게 상회. IEA는 공급 과잉이 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감소한 재고를 보충하거나 새로운 전략 비축유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

원유 수요 측면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구매 감소가 유가 하락을 이끈 주요 요인으로 분석. 중국과 일본의 원유 구매량은 합산 하루 600만 배럴 감소했으며, 중국은 원유 수입 대신 비축유를 활용하면서 4월과 5월 원유 수요가 연속 감소. 중국의 전기차 보급 확대도 석유 수요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미국과 이란은 지난 14일 종전 양해각서(MOU)에 합의했으며 19일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 호르무즈 해협의 수수료 없는 통행은 우선 60일간 적용될 예정

신재생 뉴스

CATL, 기술적 한계와 비용 문제로 상용화 시점 늦어질 것으로 판단

"전고체 2030년 양산 불가" 선언한 CATL ... K-배터리에 기회 될까 [뉴데일리경제]

(2026.06.18) CATL 쟁위첸 회장은 전고체 배터리의 대규모 상업화가 2030년 이전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 차량 100만 대 규모 생산을 기준으로 볼 때 기술적 한계와 높은 제조 비용으로 인해 상용화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으며, 실제 출시되더라도 4,700만원 이상 고가 차량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 또한 전고체 배터리의 기술 성숙도는 9단계 중 4단계 수준으로, 아직 실험실 검증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

고체-고체 계면 저항 문제로 반고체 배터리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임

CATL은 압착 공정 등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나 고체-고체 계면 저항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업계에서는 중국이 강조하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이 실제로는 반고체 배터리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 또한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발표하는 기술 수치의 측정 환경과 기준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지속되는 모습

LFP 배터리에 집중할 전망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가 단기간 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CATL은 기존 주력 사업인 LFP 배터리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 중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5월 기준 CATL 배터리 탑재량 33.1GWh 가운데 LFP 배터리가 23.1GWh로 70% 이상 차지. 최근 홍콩 증시에서 약 7.4조원 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했으며, 업계는 조달 자금이 전고체 배터리보다는 해외 생산기지 확대와 LFP 배터리 시장 지배력 강화에 활용될 가능성에 주목

삼성 SDI는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개발 중

CATL의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지연 전망은 국내 배터리 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 삼성SDI는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중, LG에너지솔루션은 전고체 배터리와 함께 리튬황, 나트륨이온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포트폴리오 구축 추진

다가온 차기 전기차 배터리 수주, K-배터리 경쟁 돌입 [디지털데일리]

GM, 폭스바겐, 현대차그룹 등 차세대 전기차 셀 공급자 선정 착수

(2026.06.18) GM은 최근 차기 순수전기차(BEV) 모델용 배터리 셀 공급사 선정을 위한 초기 입찰 준비에 착수했으며,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국내외 업체들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상황. 선정된 배터리는 GM의 3세대 전기차 플랫폼인 BEV3에 적용될 전망. GM은 차세대 플랫폼인 BEV4 개발을 미루고 기존 BEV3 플랫폼 중심의 전기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짐

고유가, 전기차 가격하락, 자율주행 등의 기대감

폭스바겐 역시 차세대 플랫폼에 적용될 유니파이드 셀용 배터리 공급사 선정 진행 중. 자회사 파워코와 중국 귀쉬안 등이 후보군에 포함된 가운데 삼성SDI의 공급사 선정 가능성이 거론. 현대차그룹도 2028년 이후 출시될 차기 전기차 프로젝트를 위해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등을 대상으로 배터리 발주 협의를 확대. 전기차 시장은 그동안 수요 둔화와 보조금 축소 영향으로 침체를 겪었으나, 최근 고유가 완화와 전기차 가격 하락, 자율주행 기대감 확대 등으로 차세대 프로젝트 추진이 다시 활발해지는 분위기

유럽 내 현지 공급망 구축 중요성 확대

유럽에서는 배터리 공급망 다변화 움직임이 확대되는 상황. EU 산업가속화법(IAA) 추진과 주요 국가들의 전기차 보조금 강화로 현지 공급망 구축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중국 업체들의 유럽

시장 영향력은 일부 제한될 가능성. 또한 노스볼트 파산, ACC·베르코어 등의 생산 차질로 유럽 배터리 업체들의 경쟁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입지 강화. 실제 ACC는 수율 및 생산원가 문제로 메르세데스-벤츠 수주를 삼성SDI에 내준 것으로 알려짐

미국은 ESS, 유럽은 전기차 회복

업계는 미국은 ESS 중심, 유럽은 전기차 중심의 '투 트랙' 성장 구도를 전망. 미국은 AI 인프라 확대에 따른 전력망용 ESS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반면, 유럽은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전기차 시장 회복 가능성 부각. 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 차량 확산이 고성능 배터리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제기. 업계에서는 국내 배터리 3사가 중국 LFP 배터리 공세와 전기차 캐즘 속에서도 미국·유럽의 탈중국 기조와 ESS 시장 확대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고 있으며, 2027년 이후 전기차 프로젝트가 다시 활발해질 가능성에 주목

中 태양광 업체들 1분기 수천억 적자...韓 기업들에는 기회 [헤럴드경제]

통웨이, 론지 등 중국 대표 태양광 기업, 1분기 대규모 적자 실현

(2026.06.16) 통웨이는 올해 1분기 3.5억달러(약 5,300억원), 론지와 TCL중환은 각각 2.8억달러(약 4,240억원), 2.4억달러(약 3,630억원)의 영업손실 기록. 진코와 JA솔라 역시 각각 1.9억달러, 1.5억달러 규모의 영업손실 발생. 중국 정부의 장기간 증설 장려와 보조금 지원을 바탕으로 생산능력이 급격히 확대됐지만,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급락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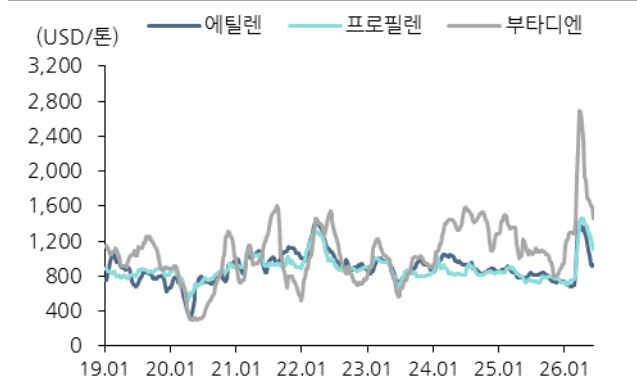
중국 정부는 보조금 폐지 등을 통해 태양광 구조조정 진행

출혈 경쟁이 심화되자 중국 정부는 태양광 제조업 규범 조건 개정을 통해 시장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으며, 지난 4월부터는 주요 태양광 제품에 지급하던 수출 보조금도 폐지. 과도한 증설과 가격 경쟁으로 인해 기업들의 부채 부담이 확대되면서 산업 구조조정 필요성이 커진 상황. 대외 환경도 중국 태양광 업체들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산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해 최대 125.8%의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발표. 이에 따라 글로벌 공급 과잉을 주도했던 중국 업체들의 생산 확대가 제약을 받을 가능성 부각

국내 기업 수혜 기대
한화큐셀 카터스빌 공장 셀 생산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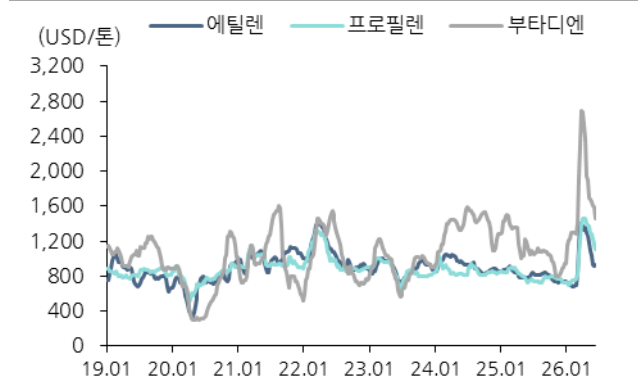
국내 기업들은 중국발 공급 과잉 완화에 따른 수혜 가능성에 주목. 한화솔루션과 OCI홀딩스는 그동안 중국산 저가 물량 영향으로 실적 부진을 겪었으나, 중국 업체들의 성장 둔화가 가격 정상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 한화큐셀은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 공장 셀 생산라인을 완공했으며 다음 달부터 양산에 돌입할 예정. 다만 미국 관세 영향으로 중국산 재고가 누적되면서 태양광 제품 및 원재료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점은 변수. 폴리실리콘 가격은 지난달 기준 kg당 5.9달러로 연초 대비 28% 하락했으며, 웨이퍼 가격도 1월 대비 27.3% 하락. 현재 폴리실리콘 재고가 45만톤으로 사상 최고 수준인 만큼 가격 반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 올해 글로벌 태양광 설치량도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640GW로 전망

그림 4. 에틸렌/프로필렌/부타디엔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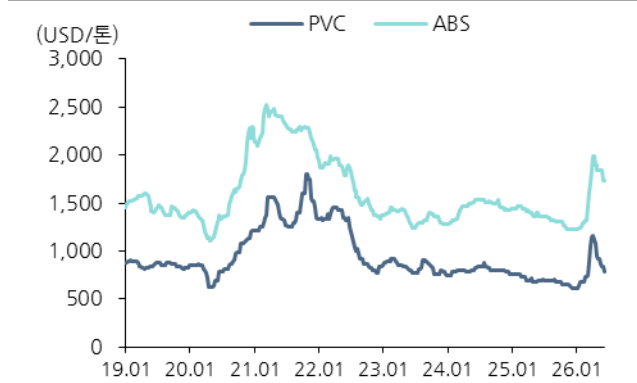
자료: 씨스کم, 상상인증권

그림 5. LDPE 및 PP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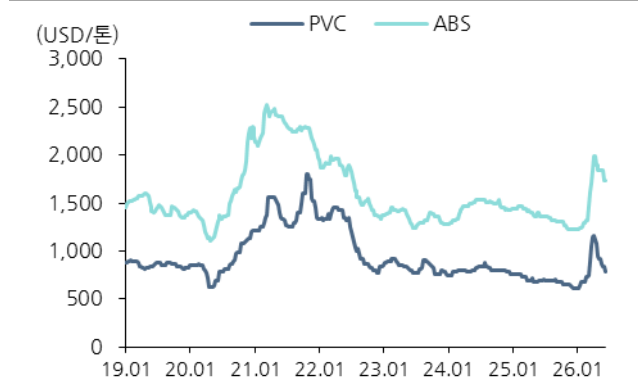
자료: 씨스کم, 상상인증권

그림 6. PVC 및 ABS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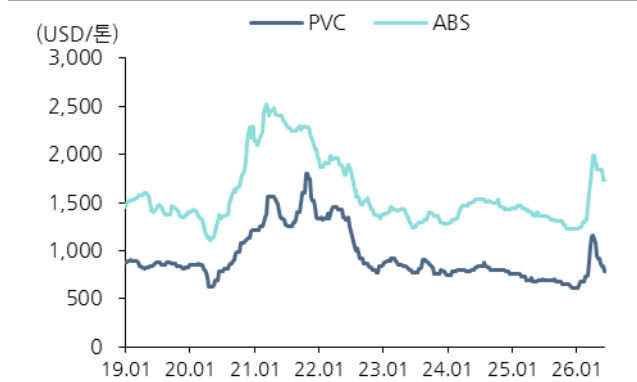
자료: 씨스کم, 상상인증권

그림 7. PX 및 TPA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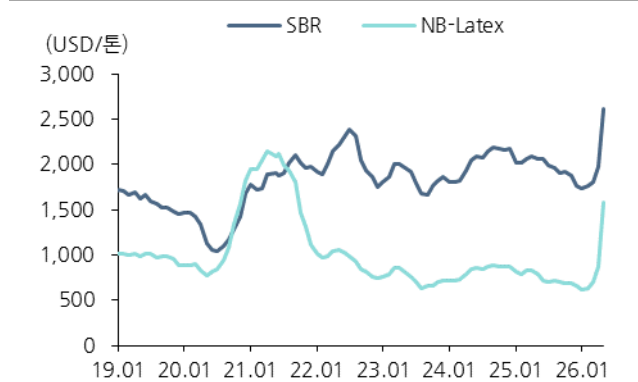
자료: 씨스کم, 상상인증권

그림 8. MEG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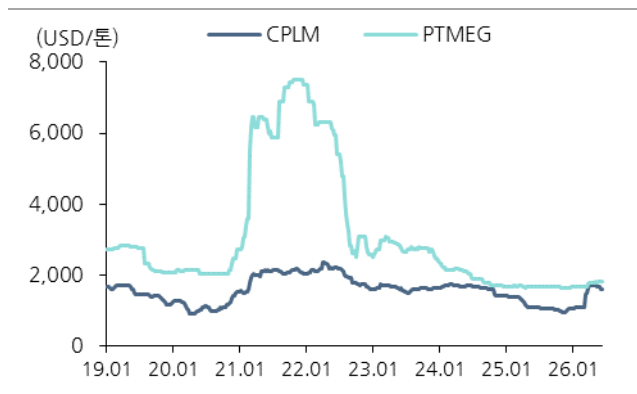
자료: 씨스کم, 상상인증권

그림 9. SBR 및 NB-Latex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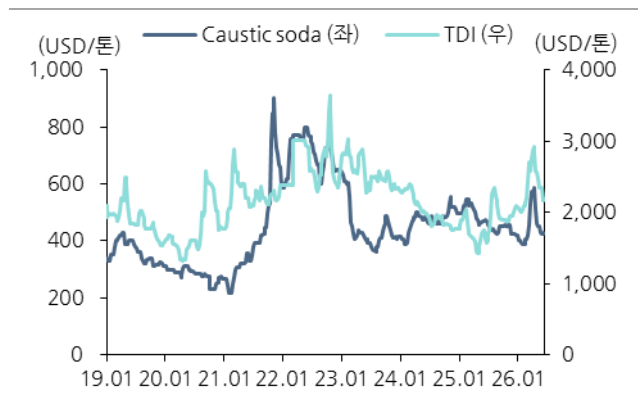
자료: KITA, 상상인증권

그림 10. CPLM 및 PTMEG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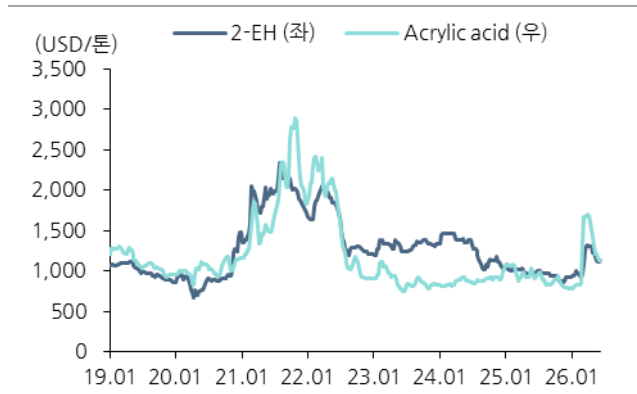
자료: 씨스캠, 상상인증권

그림 11. Caustic soda 및 TDI 가격



자료: 씨스캠, 상상인증권

그림 12. 2-EH 및 Acrylic acid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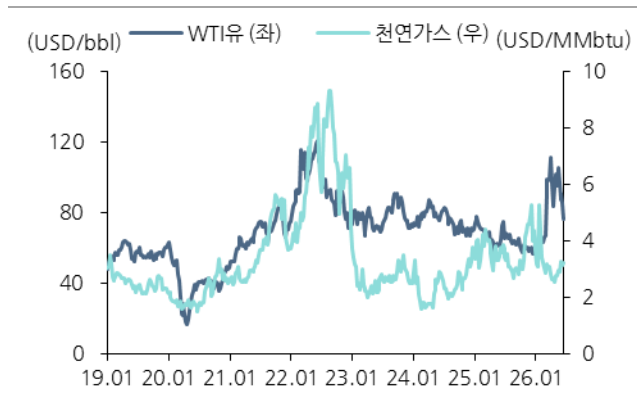
자료: 씨스캠, 상상인증권

그림 13. 면화 및 천연고무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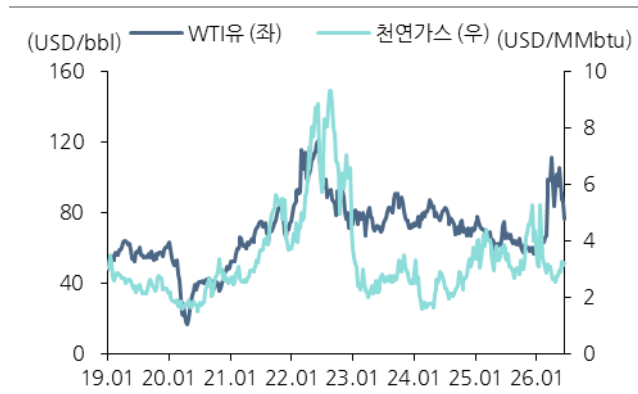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그림 14. 국제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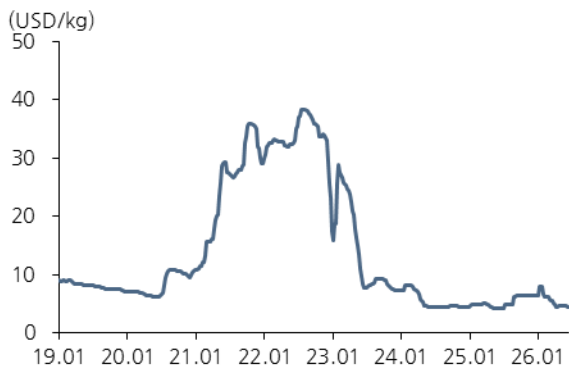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그림 15. 금 및 구리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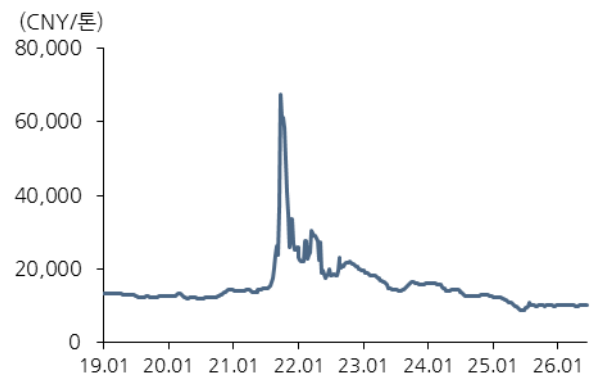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그림 16. 폴리실리콘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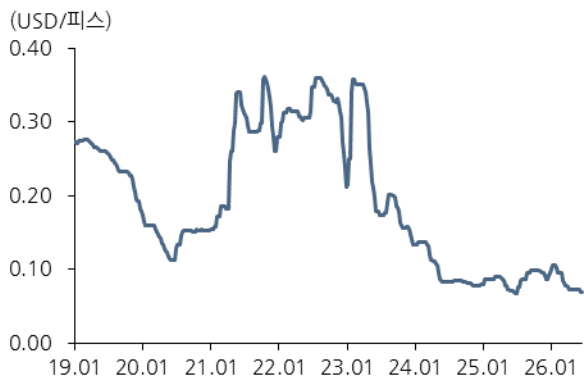
자료: PVinsight, 상상인증권
주석: PV Grade Polysilicon 기준

그림 17. 메탈실리콘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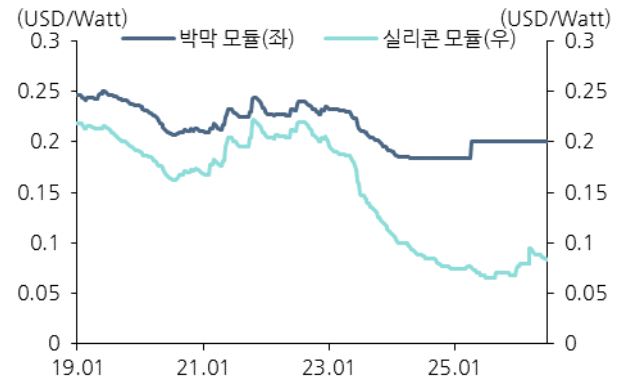
자료: PVinsight, 상상인증권
주석: China Shanghai Changjiang Silicon Metal Spot Price 기준

그림 18. 웨이퍼 가격



자료: PVinsight, 상상인증권
주석: Multi 156mm Wafer 기준

그림 19. 태양광 모듈 가격



자료: PVinsight, 상상인증권
주석: Thin-Film PV Modules, Crystalline Silicon PV Modules 기준

표 2. 주요 화학 제품 가격 및 스프레드 동향

| | Price | 상승률 (%) | | | | | |
|--------------|------------|---------|-------|-------|-------|-------|-------|
| | 2026-06-15 | 1W | 1M | 3M | 6M | 1Y | YTD |
| 나프타 | 766.0 | -1.2 | -26.1 | -23.6 | +37.5 | +30.5 | +42.4 |
| Ethylene | 925.0 | +0.5 | -15.9 | -18.1 | +24.2 | +15.6 | +25.0 |
| Propylene | 1,105.0 | -5.6 | -14.3 | +3.8 | +49.3 | +45.4 | +53.5 |
| Butadiene | 1,465.0 | -7.9 | -12.5 | -23.5 | +66.5 | +39.5 | +55.9 |
| O-X | 1,300.0 | -0.8 | -2.6 | +2.8 | +68.8 | +48.6 | +68.8 |
| P-X | 1,135.0 | -0.4 | -5.4 | -7.3 | +36.3 | +37.6 | +27.9 |
| LDPE | 1,325.0 | -1.5 | -11.4 | +7.3 | +37.3 | +28.0 | +40.2 |
| L-LDPE | 1,245.0 | -2.4 | -10.8 | +9.7 | +49.1 | +33.2 | +49.1 |
| HDPE | 1,165.0 | -1.7 | -5.7 | +3.6 | +41.2 | +37.1 | +41.2 |
| PP | 1,245.0 | -2.4 | -8.1 | +8.7 | +54.7 | +36.1 | +54.7 |
| PVC | 785.0 | -7.1 | -14.2 | -12.3 | +27.6 | +12.9 | +27.6 |
| ABS | 1,735.0 | +0.0 | -6.0 | +7.4 | +41.6 | +27.1 | +41.6 |
| MEG | 602.5 | +4.3 | -0.8 | +5.2 | +39.3 | +17.6 | +34.6 |
| 2-EH | 1,135.0 | +1.8 | -4.2 | +5.1 | +22.7 | +15.8 | +22.7 |
| Acrylic acid | 1,140.0 | +0.4 | -6.2 | -31.5 | +42.9 | +25.3 | +43.4 |
| TPA | 840.0 | +1.8 | -1.8 | -9.2 | +37.7 | +34.4 | +29.2 |
| TDI | 2,200.0 | +1.9 | -6.6 | -19.0 | +6.5 | +34.6 | +5.8 |

| Spread | | | | | | | |
|--------------|--------|---------|--------|--------|---------|--------|--------|
| Ethylene | -111.0 | -825.0 | -179.9 | -121.3 | -164.2 | -147.8 | -162.7 |
| Propylene | 69.0 | -71.0 | -79.0 | -84.9 | -58.9 | -64.1 | -56.1 |
| Butadiene | 429.0 | -34.8 | -39.9 | -67.2 | +39.3 | -11.0 | +13.8 |
| O-X | 264.0 | -30.2 | -29.4 | -59.8 | +33.3 | -14.0 | +27.5 |
| P-X | 99.0 | -52.4 | -58.6 | -84.0 | -62.0 | -61.5 | -69.5 |
| LDPE | 289.0 | -30.0 | -45.9 | -53.9 | -26.5 | -38.1 | -24.3 |
| L-LDPE | 209.0 | -39.1 | -51.8 | -60.3 | -20.5 | -43.1 | -23.2 |
| HDPE | 129.0 | -49.0 | -52.9 | -75.0 | -49.0 | -54.3 | -50.8 |
| PP | 209.0 | -39.1 | -47.0 | -61.1 | -10.3 | -39.8 | -13.6 |
| PVC | -251.0 | -188.5 | -445.7 | -187.5 | -683.7 | -297.6 | -582.7 |
| ABS | 247.1 | +6.8 | +62.2 | -54.5 | -31.9 | -13.5 | -22.3 |
| MEG | -174.5 | -43.6 | -54.1 | -249.8 | -5085.7 | -301.7 | -791.1 |
| 2-EH | 99.0 | -45.9 | -55.8 | -79.0 | -72.0 | -76.0 | -72.7 |
| Acrylic acid | 104.0 | -48.8 | -59.1 | -90.2 | -53.9 | -69.6 | -55.2 |
| TPA | 36.0 | +3900.0 | -18.7 | -88.8 | -37.1 | -50.2 | -57.1 |
| TDI | 653.9 | +2.1 | -7.9 | -61.0 | -40.8 | -5.8 | -41.6 |

자료: 씨스켐, 상상인증권

주석: 스프레드- ABS는 AN/BD/SM 기준, TPA는 P-X 기준, TDI는 Toluene 기준, 나머지 제품 군은 모두 Naphtha 기준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백영찬)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 구분 | 투자의견 기준 및 기간 | 투자등급 | 투자의견 비율 | 비고 | 구분 | 투자의견 기준 및 기간 | 투자등급 | 투자의견 비율 | 비고 |
|------------------|--|-----------------------|------------|-----------------|-----------------|--------------------------------|------|------------|----------------------|
| 산업 (Industry) | 투자등급 3 단계 향후 12 개월 시장대비 상대수익률 | Overweight (비중확대) | 76.9% | 시가총액 대비 비중확대 | 기업 (Company) | 투자등급 3 단계 향후 12 개월 절대수익률 | BUY | 93.2% | 절대수익률 15% 초과 |
| | | Neutral (중립) | 23.1% | 시가총액 수준 유지 | | | HOLD | 6.8% | 절대수익률 +15% ~ -15% |
| | | Underweight (비중축소) | 0.0% | 시가총액 대비 비중축소 | | | SELL | 0.0% | 절대수익률 -15% 초과 |
| | 합계 100% | | 합계 100% | | | | | | |